

01 교회소식

행복만 주시려는 그분의 사랑

좋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신다.

02 생명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모든 일의 결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렸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면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03 기획특집

성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것~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기며 천국의 행복을 맛보게 하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함'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04 간증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치료를 받고 문제 해결도 받은 태국 풍시 세리 집사와 기도를 통해 응답의 하나님을 만난 최유정 자매 간증.

만민뉴스

제677호 2015년 3월 15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권능의 무안단물 15주년 감사예배 및 축하공연'이 지난 3월 5일 전남 무안만민교회에서 열려 무안단물을 통해 응답과 축복을 체험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사진은 감사예배 강사 정구영 목사(예수교연합성결회 부총회장, 셋째 줄 가운데)와 축사를 담당한 GCN 방송 사장 이정호 장로(강사 왼쪽), 무안만민교회 김명술 담임목사(강사 오른쪽), 공연팀 예능위원회 소속 빛의소리중창단과 크리스탈싱어즈 등 참석자들이 자리를 같이했다.

인터뷰

“협심증과 C형 간염을 치료받았어요”

권영자 집사 (63세, 3대대 32교구)



7년 전부터 C형 간염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던 저는 몸에 이상 증세가 느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결과 간수치가 500까지 올랐으며 치료를 위해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주사를 맞으면서부터 몸에 통증이 시작됐고, 세 번째 주사를 맞은 후부터는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또다시 병원을 찾았는데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의사는 “협심증으로 혈관이 막혀 있으니 내일 당장 응급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앉아 지난날을 회개하며 “제 심장이 막힌 것을 이 밤에 뚫어주세요.”라고 눈물로 기도했지요.

이튿날 자동응답서비스(02-830-5320)로 이재록 목사의환자기도를 받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의사가 크게 놀라며 “어, 분명히 있었는데... 이상하다!”라는 말을 반복하더니 “정상이 됐네요. 심장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술 없이 막힌 혈관이 뚫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C형 간염까지도 깨끗이 치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

가난, 질병, 재앙 걱정 떠나고 주님 사랑이 가득히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우리 사람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의식주 문제로 걱정하지 않고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으며,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그래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교회 개척 이후 오늘날까지 전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

더불어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의 생계를 돕고 있다. 매달 천여 가정에 생활보조금과 쌀, 반찬 등 구제 물품을 지급한다. 그런데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구제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중앙에셋(주) 대표 노경태 장로(49)는 한때 맨홀 청소부였다. 사업이 번창해 무리하게 투자를 늘려가다가 그만 부도를 내고 순간 빚더미에 앉게 되자 가족과 함께 옥탑방을 전전하며 살아갈 때의 일이다. 하지만 교회에서 구

제를 받으며 믿음으로 이겨내 재기에 성공했고, 지금은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며 구제하고 선교하는 등 하나님 나라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 교회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비가 없어서 학업을 마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와 우림에셋플러스(주) 대표 이규동 장로의 후원, 교회 내 매점 수익으로 매 학기마다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5일에도 12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뿐만 아니라 혹여 질병에 걸린다 해도 영육 간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한 뒤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 권능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최근 2월 17~19일 설 만남을 통해서도 많은 성도가 폐결핵, 비염, 전신 피로, 난청, 허리 디스크 등 질병을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박순렬 집사(여, 50)는 갑상선 섬유선종으로 목 오른쪽 부분이 붓고 김스한 것처럼 항상 빠근했다. 피곤과 무기력감에 시달렸으며 오른쪽 팔에 마비 증상이 있어 밤중에 수시로 깬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믿음으로 받은 뒤 치유돼 요즘은 몸이

항상 가뿐하다. 박 집사는 “몸속에 독소가 다 빠진 것처럼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니 새로 태어난 느낌이다. 밤잠도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독수리가 날개 밑에 새끼들을 품듯 안전하게 지켜 주셨다. 교통사고를 당해 폐차된다 해도 몸은 다치지 않도록 지켜 주셨고 화재 속에서도 성도들의 사업터는 피해를 보지 않았다.

지난 2월 18일, 청년선교회 최성혁 형제(21)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무시한 채 시속 약 30km로 달려오는 음주 운전 차량과 충돌해 공중으로 1.5미터 정도 튀어 올랐다가 땅에 떨어졌다. 그러나 병원 진찰 결과 찰과상 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는 “차에 부딪히는 순간에도, 또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도 무언가가 나를 보호해 주는 듯 통증이 전혀 없었고 몸에 아무 이상도 없었다.”고 했다.

이처럼 성도들의 삶에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삼십 배, 육십 배, 백배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으로 축복이 넘쳐난다. 무엇보다 진리로 양육하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가르침에 따라 성도들의 근본 마음이 변화되고 있으니 참으로 큰 축복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6~18)는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열매 맺고 있는 것이다.

한편, 3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2회 연속 특별 다니엘 철야 기도회가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의 인도 가운데 42일간 ‘영광’(학 2:9)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항상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란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 6:12~16)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여리고 사람은 너무 이상한 장면들을 보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온 군대와 백성이 아침 일찍 성 주변을 한 바퀴 돈 후 그냥 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날도 역시 돌맹이 하나 던지지 않은 채 성을 한 바퀴만 돌고,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행동이 좀 달랐습니다. 다른 때보다 일찍 나와 일곱 바퀴를 돌더니 나팔소리를 길게 울리면서 백성이 한 목소리로 합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수많은 군사가 공격해도 구명조차 내기 어려운 성벽이 일시에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무너진 성벽 아래에서는 깔린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요란했고 군사들도 두려움과 혼란 속에 도망해 이스라엘 백성은 쉽게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들을 종종 만납니다. 이럴 때 의지가 강한 사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능력이 있어도 자신의 한계 그 이상의 문제 앞에서는 낙담해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줄 믿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해 담대히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듯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말씀한 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존하고 믿음으로 행군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 주시고 항상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2 여고 성과 그 성의 모든 것을 바치게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 6장 17-1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 너희는 바질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 했습니다.

그리하여 여리고 성을 취하고 그 성에서 얻은 노획물을 사사로이 취하지 않고 다 불사르거나 성물로 구별해 하나님께 드렸지요. 또한 여리고의 사람과 짐승도 다 죽였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좇아 (신 7:16) 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에서 얻은 물건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오늘날 우리가 수입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여리고 성의 사람과 짐승을 죽이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이지요.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많은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며 극심한 죄악 가운데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 두면 함께 죄악에 물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사람을 진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일정한 지역의 사람들이 심히 타락해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을 그냥 두셨다가는 온 세상 가운데 범죄가 전염병처럼 퍼져서 인간을 경작하는 섭리에 차질이 생기게 되므로 사람들의 죄악이 어느 한계에 달하면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시라(요일 4:16)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라 해도 당장 멸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진멸할 수밖에 없지요.

3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린 여호수아

여호수아 6장 2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마음이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기생 라합과 그 아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를 들

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라합과 그 가족은 살려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에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창문으로 탈출시킬 때에 사용한 붉은 줄을 창문에 매어 두고 라합과 그 가족이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혼란스러운 전쟁에서 지킴받기 위한 조건이었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날이 갈수록 전쟁, 기근, 지진, 태풍, 홍수, 질병 등 각종 재앙들이 범람합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자는 재앙을 당치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진리 안에 거하며 죄악된 세상과 짝하지 않아야 지킴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에는 항상 지킴받을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의 정복과 관련해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죄악이 관영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는 다시는 여리고 성이 건축되지 못할 것을 맹세해 말하기를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했지요.

그런데 약 500년 후, 여호수아의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왕상 16:3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선지자의 말을 반드시 보장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전쟁뿐 아니라 모든 일의 결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깨달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늘 승리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람하던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목표물은 금성철벽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굳게 닫혀 출입하는 자가 없는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여리고를 두른 두 겹의 성벽은 그 위로 마차가 다닐 정도로 두꺼웠고, 단단히 무장한 군사들이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정복했을까요?

1 오직 순종함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6장 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십니다. 모든 군사가 옛새 동안 성을 매일 한 번씩 돌고 제 칠일에는 일곱 번을 도는데, 이때 맨 앞에 일곱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잡고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멘 사람들이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을 일곱 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는 것이었지요(수 6:5).

일곱은 완전수로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전술이지만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는 조금도 의심하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팀(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 리 은 행 :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함이란?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믿음을 소유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영'이다.

과연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함이란 무엇이며 신앙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능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또한 마음에서부터 기쁨과 감사가 나오므로 모든 일이 즐겁고 행복하며 마음도 평안하다. 여기에 성령의 교통함을 입는다면 범사에 만사형통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성령의 감동 감화를 입는다면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다.

이러한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함은 우리 마음에 진리로 일군 만큼 임할 수 있다.

비유 들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업가라도 자본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그 능력이 발휘되는 정도가 달라진다.

이처럼 성령은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우리 마음을 진리로 채운 정도에 따라, 곧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나타나는 정도가 다르다. 또한 얼마나 간절히 사모함으로 불같이 기도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진리를 통해 영의 공간을 느끼게 하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란 보혜사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진리를 통해 영의 공간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다. 곧 평안과 기쁨과 감사만 있는 영의 공간을 느끼게 된다.

비유 들어, 마음을 영으로 10%밖에 일구지 못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 10%의 영의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어서 온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육이 전혀 없는 영의 공간의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된다.

바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오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으며, 현실을 보면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게 된다.

이처럼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면 마음의 소원이나 기도와 간구에 응답도 신속히 임한다.

곧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기도할 때는 믿음도 빠르게 성장하고 응답이 앞당겨지는 것이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과 인도를 받아가는 '성령의 교통함'

'성령의 교통함'이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과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늘 하나님과 교통을 이룰 수 있으며(요 14:26), 항상 부르짖어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은 더 밝히 교통할 수 있다. 진리의 마음을 이룬 만큼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정도가 다른 것이다.

'성령의 음성'은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만큼만 들려주신다.

이때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 떠올러지는 방식으로 들리기도 하고, 성령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경우도 있다(눅 2:26 ; 행 8:29).

'성령의 주관'을 받는 것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해야겠다, 누구를 구제하고 싶다.' 등의 마음이 들게 하시는 것이다(행 16:6).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성령의 음성으로 들은 것이나 주관받은 것을 순종해 가는 것이다.

처음에는 성령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하는 훈련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렇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가면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순종이 따르지 않는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고 그만큼 믿음 성장도 더디게 된다.

이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주관과 인도를 받아가는 것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 가능하다.

성령의 교통함으로 하나님 뜻을 안다 해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도는 다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깨닫는 '성령의 감동 감화'

'성령의 감동 감화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 된 공간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을 말한다.

즉 이 땅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근본 된 공간에만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과 무한하신 능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고 환상도 볼 수 있는데, 단지 보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

성령의 감동 감화는 거의 동시에 이뤄지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먼저 성령의 감화를 입은 뒤 감동함 가운데로 들어간다.

비유 들어, 아름다운 공원으로 순간에 옮겨졌다면 시야에는 꽃과 나무들로 조성된 아름다운 풍경이 들어오고,

귓전에는 예쁜 새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리고 이내 마음에는 '아름답다. 참 평화롭다.'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 임할 때에 먼저 보고 듣는 것이 '감화'의 단계라면 보고 들은 것이 마음에 느낌으로 전달되는 것이 '감동'의 단계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근본 된 공간에 들어가게 될 때 환상을 보거나 어떤 영의 소리,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화'이며, 근본 된 공간에서 와닿는 느낌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성령의 감동 감화를 입으면 하나님의 근본 된 공간 안에 머물게 되므로 어떤 어둠의 세력도 방해할 수 없다.

그래서 때에 따라 앞으로 될 비밀한 일에 대해 알 수 있고, 영계의 깊은 계기도 받을 수 있다(벧후 1:21 ; 마 22:43~44).

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5년 3월15일~3월21일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십자가의 도 14~18
- 창세기 강해 18~22
- 심계명 1~4 ■ 진정한 사랑
- 믿음의 분량 21~25 ■ 영의 사람
- 요한일서 강해 24~28 ■ 선
- 요한계시록 강해 15~21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15

목자의 권능 안에 이수진 목사

- 말장이 1 (이미경 목사)
- 99.99 (이미경 목사)
- 영의 세계 31 (이희선 목사)
- 옴기 강해 12 (신동초 목사)
- 열 재앙 16 (정구영 목사)
- 성령의 9가지 열매 7(김수정 목사)

예능 프로그램

- 알콩달콩 어여쁜 율동 23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30
- English 7 ■ 뷰티풀 라이프 4
- 옛날 옛적에 13 ■ 창조와 과학 6
- 흥겨운 소리 2 ■ 만민 지킴이 5
- 모두 드려요 24 ■ 내 마음의 찬양 8
- 즐거운 요리 26 ■ 플로리스트 6

■ 회상 2

- 인도 연합대성회 2
- 2014 지역장, 조장, 구역장 교육 1~2

해외성회 및 교육

GCN TV설교

1577-2073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사시 치료, 송금 사기까지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시 세리 집사 (53세, 태국 치앙라이만민교회)

저는 태국 방콕에서 4년간 다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 곧잘 제 삶에 대해 불평하고 매사에 걱정이 많았지요.

그러던 중 이웃의 전도로 2011년 2월, 치앙라이만민교회 손수건 집회에 참석하게 됐고, 5년 된 왼쪽 눈의 백내장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당시 한국 만민중앙교회에서 오신 이성철 목사님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를 받았는데, 눈에 시원한 느낌과 함께 몸에 떨림 현상이 있더니 온전히 치료된 것입니다.

그래서 치앙라이만민교회에 등록했고, 제 삶은 모든 면에서 달라졌습니다. GCN 생방송(www.gcntv.org)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순종하기를 힘쓰니 제 마음이 바뀌고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지요.

또한 당회장님의 신앙서적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나의 삶 나의 신앙』, 『천국』을 읽으며 제 마음은 천국 소망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이렇게 제가 치료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니 두 딸도 기뻐하며 2012년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더구나 큰 딸은 저와 함께 치앙라이만민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지요. 손녀(3세)가 선천적으로 사시가 심했는데 이제 원 담임목사님의 손수건 기도로 치료된 것입니다.

2014년 11월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이 보낸 상당한 금액을 송금 사기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6~18)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했지요.

제게는 큰 금액이었지만 돈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이 기회를 통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랐고, 가해자도 회개하기를 바랐지요. 동시에 매주일 예배 시 당회장님의 기도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송금 사기를 당한 지 한 달 만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응답해 주셨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사시를 치료받은 손녀와 큰 딸과 함께한 홍시 세리 집사

주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만민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행복하지만 합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알려 주시니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더욱 알고 싶어서 태국어로 더빙된 ‘십자가의 도’, ‘영혼육’ CD 등을 반복해 듣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매주 세 차례 담임목사님으로부터 MIS 강의를 통해 ‘요한계시록 강해’, ‘데위키 강해’를 배우고 있지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축복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섬세하신 사랑으로 최연소 합격자가 됐어요!”



최유정 자매 (22세, 2청년선교회)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 매일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습관은 있었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그저 앉아 있을 뿐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축복을 받았지요.

2014년, 고객응대 서비스 관련 CS리더스관리사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을 놓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세 번째 본 시험에서도 1점 차이로 떨어진 것을 확인하며 저는 그 날도 기도 시간에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제 입이 떨어지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 달라는 기도가 이내 회개 기도로 바뀌었고, 어느새 기도는 간절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하고자 했던 교만한 마음을 철저히 회개했지요. 그 다음부터 제 기도는 예전과 달라졌고, 2개월 뒤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됐고, 중국어 HSK 5급 자격증도 취득하고 학교 성적도 더 향상됐습니다. 이처럼 기도에 재미를 느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니 아무리 피곤해도 밤 9시부터 열리는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매일 참석했습니다. 전문대학 2학년 2학기부터는 취업을 준비해야 했기에 여름방학부터 직장을 놓고 기도했지요.

2014년 11월 2일, 교수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호텔신라에서 공채 사원을 모집하는데 내일이 마감이니 지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채라서 쉽지만 지원해 보는 것도 경험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인터넷으로 서류 지원을 했고, 며칠 뒤 발표가 났는데 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합격통지를 받은 다음날 삼성직무적성검사인 싸트(SSAT) 시험을 보러 오라는 것입니다.

급박하게 진행된 상황이라 준비를 할 시간이 없었지만 시험과목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들이고 객관식으로 출제돼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싸트(SSAT)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지요.

그 뒤 1차, 2차 면접시험도 자동응답서비스에 담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무안 단물을 마신 후에 입해 편안하게 볼 수 있었고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인 신체검사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뜻밖의 결과에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하면서 궁구해 보았지요. 하지만 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바로 합격했다면 입사일이 12월 16일이라 기말고사 시험 기간과 겹쳤을 것이고, 퇴근 후 기말고사를 본다면 상위권 성적을 얻는 것은 쉽지 않았지요.

하지만 신체검사가 미뤄지는 바람에 입사일이 12월 22일이 됐고, 기말고사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학기 성적은 전 과목 A+, 평점 4.5점을 받았고, 저는 신체검사 후 최연소 합격자로 호텔신라의 면세유통사업부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자매회,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로 103, 백성 5/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성북구 광덕안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073
- 경인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